



PHI News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식]

2010년 12월 10일
(제5호)

137-8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9-3 인산빌딩 302호 070-8658-1848, F 02-581-0339,



또 한해가 가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말이긴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린 1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연구소는 ‘내공쌓기’ 중입니다. 연구소만 ‘내공쌓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공쌓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사안을 치우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내공’, 문제가 생겨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내공’, 감정에 치우쳐 억지를 부리지 않을 ‘내공’ ... 등등의 ‘내공’.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공부라면 공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 내년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빕니다.



그리운 이들에게 연말에 따뜻한 손 글씨 편지 한통 붙이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서 상 회 드림

PHI 칼럼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감염인이자 장애인인 한 청년 노동자의 삶

최용준¹⁾

먼저, 독자들께서 아래 질문들에 예, 아니요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 중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을 때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가?
- 같은 직장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을 때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하는가?
-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는가?
- 에이즈 감염인을 다른 사람과 격리하여 수용 시설에 보내야 하는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난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다. 올해 에이즈의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된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세상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이다. 그동안 한국의 에이즈도 많은 것이 바뀌었다.



1) 한림대 교수, HIV/AIDS 인권 연대 나누리+ 회원.

등록 감염인 수가 칠천 명을 넘어섰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도 열 번이나 개정되었다. 여러 종류의 치료제가 소개되었고 에이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도 늘었다. 한국에이즈연맹이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같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정부에도 에이즈 정책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에이즈 캠페인도 질병 예방뿐 아니라 감염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또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에이즈에 무관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무관심의 크기만큼 에이즈 문제는, 감염인의 인권은 주변화 되기 마련이다. 에이즈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무관심 속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공포만큼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동성애 혐오로 이어지는 것도 여전하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는 엽기적인 신문 광고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희망적 변화 조짐과 변치 않는 무관심과 공포, 혐오. 이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에이즈는 이런 현실 속에서 25년이란 시간을 흘러 보냈다.

한국의 에이즈, 25년.

그 25년을 온몸으로 살아 낸 청년이 있다. 에이즈 인권 활동가, 윤 가브리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중학교 중퇴와 가출, 보조 시대로 시작한 노동자 생활, 동성애자로서의 자각, 에이즈 감염, 사경을 헤매던 투병 생활, 실명과 청력 상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과 에이즈 감염인 인권 운동, 그리고 노래, 노래. 최근에 나온 책, <하늘을 듣는다(도서출판 사람생각, 2010)>에서 더듬을 수 있는 그의 이력이다. 가브리엘은 2008

년부터 격월간 인권 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 글을 썼다. 그 글들을 한데 묶고 다듬어 낸 것이 이 책이다.

가브리엘은 한 마리의 어린 양,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다. 그와 몇 년째 알고 지냈으면서도 나는 그가 그렇게 약한 존재였는지 몰랐다. 친어머니도 모른 채 배다른 형들의 구타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중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력, 봉제 기술자를 꿈꾸며 보조 시다로 출발한 노동자 생활, 그러나 너무도 열악하기만 했던 노동 현실, 혐오의 대상일 뿐인 동성애자로서의 자각, 에이즈 감염, 그에 따른 실명과 청력 사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남김없이 제 것으로 삼았는지! 그러나 이렇듯 불행하고 약한 존재일 뿐인 가브리엘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로서, 에이즈 감염인 인권 활동가로서 자신이 할 일, 해야 할 일을 자각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우리의 인권 의식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말이다. 학력이라곤 중학 중퇴가 전부인 못 배운 사람, 영세 사업장을 전전하는 봉제 공장 노동자, 여전히 혐오와 기피의 대상일 뿐인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나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런 가브리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날을 기다린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가브리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의 문제의식에 발 벗고 나선다면 그때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책은 그런 세상을 앞당기려는 가브리엘의 분투기(奮鬪記)이기도 하다.

<하늘을 듣는다>

윤가브리엘 저/

사람생각/

정가 13,000 원



이 책에서 가브리엘은 이미 어엿한 작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브리엘의 초고를 교열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 중의 하나였다. 책 한 권을 만들 분량이니 바로잡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거니 했다. 저명한 지식인이나 교수들의 책이나 논문에서 술한 문체들을 보아 온 터였다. 그때는 아직 가브리엘의 이력을 모르는 상태였다. 책은 쉽게 읽혔다. 교정은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학력과 배경 등 가브리엘의 이력을 알게 되었다. 놀라움은 커졌다.

가브리엘의 글은 간결하고도 정확하다.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글이 드러내는 삶의 진실성 때문이었을까?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의 내용 대부분과, ‘모두에게 접근권을 (164쪽)’이나 ‘푸제온, 말도 안 돼!(189쪽)’처럼 논리를 세워 강하게 주장을 펴는 대목은 그 질감이 조금 달랐다. 그렇더라도 가브리엘의 글은 이미 일급 작가의 작품이었다. 내가 읽은 어느 학자도, 어느 지식인도, 어느 작가도 가브리엘만큼 잘 쓰지 못한다. 이야기의 진실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빼어난 글솜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브리엘의 책을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는 한국 에이즈 감염인 인권 운동의 상징 같은 존재다. 그는 이 땅의 가장 약한 존재, 하느님의 어린 양, 꺾박받는 자의 대변인이다. 그가 살아 낸 수십 년의 세월이 곧 한국 에이

즈 25년을 말해 주며, 그가 겪어 온 세상살이는 가난한 사람이 몸으로 겪은 한국 현대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늘을 듣는다>를 읽음으로써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감염인이자 장애인인 한 청년 노동자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독자들께서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던진 질문을 기억할 것이다. 그 질문들은 에이즈에 대한 보통 사람들, 즉 대중의 태도를 가늠하는 데 널리 쓰이는 설문 문항들이다. 몇몇 나라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한국 (2007)	영국 (2006)	미국 (1999)	프랑스 (1992)
가족에서 추방 반대	68.2%	-	-	-
직장에서 추방 반대	68.1%	92.0%	81.4%	-
자녀와 같은 학교 허용	50.4%	-	85.1%	79.3%
사회적 격리 불필요	60.9%	-	-	94.4%

과 반수의 응답자들이 에이즈 감염인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격차는 크다. 어쩌면 이 차이에서 수많은 가브리엘들의 고통이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그 어느 쪽이라도 <하늘을 듣는다>를 꼭 읽을 것을 권한다. 당신이 관용적이지 않다면 책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당신이 이미 관용적인 사람이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판단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끝)

PHI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 영펠로우 손정인

인터뷰이 : 회원 정인자



쑥스럽다고 사진을 보내오지 않으셔서, 인기 절정의 '뽀로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회원 인터뷰이므로 인기 절정 이미지가 채택되었습니다.

정인자 회원

○ 자기 소개

지방 소도시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어서 참 어렵다. 정신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고 싶으나 입에 풀칠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안에서 돈 벌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인지 계기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 때문에 알게 되었다.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가입 계기

어떤 형태로든 이런 종류의 연구소가 '좀' 살아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그런 거다.

○ 연구소에 바라는 점은?

- 정인자 회원은 급하게 연구소 누리집을 살펴보고 난 후(^ ^) 다음과 같이 대답해주심. 내용이 많아서 열쇠말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

¶ 연구소 명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타이틀 자체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지향성 측면에서 굉장히 물계급적이다. 피플도 아니고... (한글 명칭 변경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영어 명칭을 소개함)

¶ 사회에 대한 비판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들은 시장으로 통한다. 시장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의료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체제여서 이성이 욕망을 압도할 때는 혼치 않다는 것을 사회에 나와서 새로 느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쌀과 돈, 그리고 약이 주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시장 재편을 돕는 정책이고 ‘담배값 상승’은 흡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 본다.

¶ 의료에 대한 비판 의식

건강 그 자체로만 보면 건강을 증진하려면 의료 체계보다 식품체계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의료는 2차적인 거다. 일단 병이 생기고 나면 뭐하나? “실질적인 건강은 의료 안에 있지 않다. 의료는 뒤치다꺼리만 할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제일 큰 거는 ‘노동조건’, 다음은 지역사회 내에서 운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의 문제이다. 결국 지자체 예산 문제와 관련이 많은데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에서 아토피, 천식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은 뻔하다. 주거환경 나쁘고 먹거리 나쁘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이혼하는 거고. 도대체 ‘출산률 증가’ 얘기하면서 이미 낳아 놓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는 건지 관심도 없고... 공

부방 이런 데 예산 팍팍 다 깎이고 무료급식소 조차도 예산과 후원이 없어 다 망하고 있는데...

건강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챙기지 않으면서 그냥 보험체계를 논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대단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소에 바라는 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향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책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들은 대단히 물계급적이다. 지향과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의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선도하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 (예, 한미 FTA나 유전자조작식품 사례 등).

의료체계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을 잘 살펴야 한다 (예, 급식 문제).

실손형 의료보험 체계가 작년에 모두 표준화된 걸로 안다. 이것은 민영의료보험체제로 들어가려는 신호탄이다. 시장과 변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책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프레임과 단어 선택이 뛰어나고 사람들 심리를 잘 파고든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다.

○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늦둥이가 무럭무럭 크는 거... 말도 곧 잘 한다. 그냥 귀엽다. 그리고 빛을 다 갚았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인자 회원님과 인터뷰하고 내용 정리해주신 손정인 선생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정인자 회원님, 빛 다 갚으신 것 축하드려요. ♡

PHI 동향

■ 세계 대한의료 탐방 진행 중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및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세계대한의료 탐방_쿠바’ 를 기획하고 진행 예정 이었습니다만, 비수교 국가인데다 현지 물가가 너 무 비싸서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수요조사에 살뜰히 답변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후, 다시 수요조사를 통하여 다른 형태의 세계 대한의료탐방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더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희귀난치성환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 에서 경상대학교·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희 귀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있 었습니다. 멀리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열띤 분위기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일본 비영리협동조합연구소 내방(來訪)

(Institute of Nonprofit Health Care Cooperation)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일본 비영리협동조 합연구소에서 방문하셨습니다. 1시간 가량 시민건 강증진연구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방문하신 김남순 회원님께서 찍어주신 사진.

■ 진보진영 ‘담배 가격 인상’ 간담회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선생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님, 조홍준 교수님 등과 함께 ‘담배 가격 인상’을 어 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부 간담회를 열었 습니다.



■ 월례세미나

12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사연 이상동 연구센터장님을 모시고, ‘독립민간연구소 운영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HI 알림

■ 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 뉴스읽기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 7시 30 분 대학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열립니 다.



■ 활동가를 위한 조사분석방법 기초강좌

-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 27일(목)
- 장 소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 수강생 : 15명 (선착순 마감)
- 수강료 : 5만원
- 문 의 : ☎ 070-8658-1848
✉ phprc@hanmail.net
- 담당자 : 서상희
- 수강신청 기간 : 2010년 12월 26 ~ 마감까지.
- 프로그램 소개 :

<1/26>

시간	강좌	강사
10:00 ~	강좌 소개	
10:20 ~ 11:20	조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할까? (I)	김명희
11:30 ~ 12:30	조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할까? (II)	김명희
12:30 ~ 14:00	점심	
14:00 ~ 15:00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까?	서제희
15:10 ~ 17:00	엑셀을 이용한 분석	손정인

<1/27>

시간	강좌	강사
10:00 ~ 11:30	심층면접은 어떻게 할까?	정진주
11:30 ~ 14:30	▶ 면접실습 + 정리 ▶ 점심	
14:30 ~ 15:30	실습결과 토의	
15:30 ~ 17:00	심층면접결과 분석 및 정리	

후원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해요 ♥

- 우리 연구소는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의 개혁과 대안담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제로 강좌를 개발하여 보건의료 부문의 종사자와 학생, 의료인 등과 함께 공부하며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우리 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의 후원 또는 연구비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시민의 후원에 의한 기금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독립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 이와 같은 연구소의 뜻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 성과물을 함께 나누며, 한국 사회 보건의료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연구소에 납부하시는 후원금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살림살이

○ 회원가입 문의

전 화 : 070-8658-1848,
070-8659-1848
팩 스 : 02-581-0339
이 메 일 : phprc@hanmail.net

○ 찾아오는 길



	구분	내역	수입	지출
수입	회비	11월 회비	4,647,080	
	사업 수입		0	
	기타 수입	디딤돌일자리_ 종료_4대보험료	378,202	
	후원금	비정기 후원금	1,314,040	
지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1,800,000
	공과금	전기세 복사기렌탈 등		240,230
	복리 후생비	4대보험		944,260
	사업비			1,371,340
	소모품비			25,040
	인건비	11월 급여		4,807,638
	지급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4,500
	통신비	전화, 인터넷 등		113,970
	자료 구입비	경향신문 구독		15,000
		계		6,339,322

📖 End 📖